

공공기념공간의 인터페이스 분석을 통한 복합적 소통구조 제안

A Proposal of Complex Communication Structure on Public Memorial Space
by Study of Interface System

이승환(동양대학교 교수)

김영찬(한양대학교 대학원 강사)

- I. 서론
- II. 공공기념공간의 특징
 - 1. 공공공간의 구조와 국내 인식의 한계
 - 2. 공공기념공간의 의미와 구조
- III. 공공기념공간에 대한 제안
 - 1. 국외 공공기념공간의 사례
 - 2. 국내 공공기념공간의 사례와 제안
- IV. 결론

I. 서론

공간이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이라면, 공공공간은 환경과 관계를 맺은 인간 개개인이 다시 그 공간 안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복합적인 공간현상이다.¹⁾ 공공기념공간은 바로 이러한 공공공간 안에 기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디자인되는 기념물과 기념관을 의미한다. 물론 공공기념공간은 기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공공기념공간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기념의 대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려 시도하지만, 기념의 대상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는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주입되지 않는다. 공공기념공간의 메시지를 수신(受信)하는 대상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성으로 이를 다시 자신만의 메시지로 재해석해 내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념공간이 의도하지 않은 현상과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념공간은 기념이라는

1) 김영찬, 「공공인터페이스에서 간판의 커뮤니케이션구조와 미적감성의 기능 연구」, 한국미술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pp.18~19.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넘어, 시민과의 보다 복잡한 상호커뮤니케이션구조를 고려하여 공공의 유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공기념공간은 기념의 대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데 주력할 뿐,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생산적인 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여기는 실정이다. 기념을 기획하는 주체가 공공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다양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기념공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구조가 일방적 메시지만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공기념공간의 자율성과 창조적 기능을 파괴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공공기념공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미를 살펴 공공기념공간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공공기념공간의 상호작용성과 가능성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공공기념공간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기념공간들의 문제점을 살펴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공공의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유기적인 공공기념공간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공공기념공간의 특징

1. 공공공간의 구조와 국내 인식의 한계

공간은 공간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의 물질성, 물자체로서의 속성은 인간과 무관하게 그 자리에 그 자신만의 질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인간이 개입하는 경우, 그 공간은 인간에 의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환경은 인간을 품지만, 인간 없이는 환경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간은 인터페이스라는 공간현상으로 기능하게 된다.²⁾

공공공간은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일차원적 관계가 자연적이고 사

2) 기 본지페. 박해천 역, 『인터페이스』, 시공사, 2003, pp.47, 69.

회적인 관계를 포함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때 형성되는 공간, 즉 여러 구성원과 집단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구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³⁾

물론 공공공간의 다양성과 개별성은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테크놀로지의 한계로 인하여 수직하향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구조로 구축되어 왔으나, 공공공간에 내재된 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구조는 끊임없이 공공공간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유지·유도하고 있다. 공공공간은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관점으로만 디자인될 수는 없는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공공간의 의미는 아직도 ‘나와 너’ 보다는 ‘그 누구를 위한 우리’에 머물러 있다. 즉 헤게모니를 장악한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기를 무의식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지만, 일상의 공간은 아직도 공공의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는 아직도 공공공간을 인터페이스가 아닌 일방적 정보전달의 매체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전임 대통령이 서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분향소는 이 억압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공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이자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분향소는 그 어떤 합의도 없이 모든 시민이 고인에 대한 분향을 원하며, 또 원해야 한다는 암묵(暗黙)적 전제하에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분향을 강요하게 된다. 같은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념이라 해도,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서거 당시 유럽이 보여준 자유롭고 개인적인 추모의 모습과, 특정집단에 의해 자발적인 추모가 유도되는 한국의 모습은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인을 기리는데 익숙한 유교문화권에서는 이를 문화의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공공을 위한 공간에 아무런 합의 없이 개인을 위한 공간이 자유롭게 투입하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공공공간을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공기념공간은 기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기념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와 교육은 공공기념공간의 기본적인 목

3) 김영찬, 「공공공간의 유비쿼터스화에 적합한 공공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념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Vol 22. 2009, pp.169~172.

적이자 기능이다. 그러나 시민은 기념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와 교육을 접하면서 각자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만들고 소통시키는 존재이다. 즉 소통을 위한 공간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2. 공공기념공간의 의미와 구조

공공기념공간은 우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상공간이란 사이버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개념적 공간, 언어를 통해 추상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공공기념공간의 실재성은 바로 이 추상화된 언어의 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스 E. 영은 기념공간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 기억과 문서가 기념공간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 필요를 예견했다고 주장한다.⁴⁾ 머릿속 기억과 종이에 적힌 기록은 물리적 실체가 없었지만, 그 가상의 형태는 기념의 대상을 선정하고 기억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념공간의 형성이 개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서 공공기념공간의 근원을 개념에 둘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비롯된 현대적 공공기념공간들은 기념이라는 행위를 추상의 영역에서 구체적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내야만 할 필요에서 디자인되었었다. 즉 추상적인 기념공간이 특정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실제적인 기념공간은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의 성립에 있어 필요한 가시적 성과물,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⁵⁾에 대한 증거로서 기획되었던 것이다.⁶⁾

기념에 대한 추상적 기억과 구체적 행위의 관계가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구체적 행위의 방식도 승리와 희생으로 구분되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보통 Memorial을 비극적인 사건이나 슬픔을 기억하는 장소로, Monument는 영웅적 사건이나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Memorial도 당대의 슬픔을 기리는 현재의 상황, 즉 승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Monument도 영웅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리는 슬픔의 장소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

4) James E. Young, *The Texture of Memory*(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7.

5)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6)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5, pp.37~61.

지 않는다. 그렇다고 Memorial을 기념이라는 인간의 행위로, Monument를 특정인물과 사건에 연관된 물건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기념을 위해서는 기념물이 필요하며, 기념물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⁷⁾ 이 둘은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기념공간의 또 다른 특성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를 이어줌으로써 시간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즉 기념공간은 과거의 흔적으로서 현재와 상호작용을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를 만들게 된다. 개념과 실재, 승리와 패배,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성격을 통해, 기념의 의미와 목적은 고정되지 못한 채 영원히 떠돌아다니게 된다.

과거 사건에 대한 기념은 언제나 불완전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정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과거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나일본부설에서 동북공정에 이르기까지 광개토대왕비에 얽힌 역사왜곡이 광범위하게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과거의 사건과 유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역사적 진실보다는 현실의 정치적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념의 대상을 절대불변의 영웅적인 대상으로 신화화시킬 경우,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가 ‘기념비’ 적인 것을 ‘무덤 속에 파묻힌 것’, ‘하나의 개념에 고정되어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⁸⁾ 기념물을 조성하는 주체의 관점을 관람객에게 강요하는 행위, 기념이라는 이름하에 기념대상의 개념을 고정해 버리는 행위는 기념의 대상을 왜곡하고 한정시키며,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의 생산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기념이 재현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재현이란 현재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의 대상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에 속해 있다. 과거의 대상을 현재에 불러오는 과정에서, 재현의 대상, 즉 원본은 원본 그대로 현재에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재현된 원본의 복제로서, 즉 원본이 아닌 대상으

7) Young, *The Texture of Memory*, p.3.

8) Friedrich Nietzsche, Adrian Collins, *The Use and Abuse of History* (New York: Cosimo Classics, 1985), pp.14~17.

로서 현존(現存)하게 되는 것이다. 차이와 반복의 구조처럼 재현은 동일한 대상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위한 행위 속에서 절대로 복제되지 못할 현존의 대상을 생산해 내게 된다. 기표와 기의의 분리는 자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의의 기표화 혹은 유행의 현존,⁹⁾ 즉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현실화라는 시물라시옹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념공간의 의미는 생산될 뿐, 소유되지 않는다. 공공기념공간은 이와 관련된 주체들의 수만큼 다양하게 생산된다. 즉 공공기념공간이 들어서는 곳의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기념공간을 기획하는 주체와 디자이너, 시민 그리고 이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기념의 목적과 의미, 형태는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건축가나 비평가, 큐레이터들은 포스트모던과 그 이후의 형태들을 선호하지만, 기념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기억과 경험을 아름답게 강조할 수 있는 양식을 선택하려 하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형식을 주로 요구한다.¹⁰⁾ 공공기념공간은 기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만족시켜야 한다. 공공기념공간은 공공성과 목적성, 창조성과 수용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Ⅲ. 공공기념공간에 대한 제안

1. 국외 공공기념공간의 사례

선행된 고찰을 고려할 때, 공공기념공간에 대한 분석은 세 가지 분석틀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공공기념공간의 기념대상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 역사적 진실과 의의를 파악하고, 현재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공공기념공간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목적과 표현방법 그리고 기대효과를 살

9) 자크 데리다, 김보현 편역, 『해체』, 문예출판사, 1996, pp.130~134, 296~313.

10) Young, *The Texture of Memory*, pp.8~11.



도 1. 솔 르위트, <잃어버린 유대인을 위한 검은 상자>
1988, 독일 함부르크

핍으로서 공공기념공간의 형태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다시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념의 주체와 목적, 디자인어와 방법, 관람객과 효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공공기념공간에 관련된 각 대상과 그 행동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의 기준을 가지고, ‘반기념물(Counter-monument)’로 불리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물들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독일의 ‘반기념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를 둘러싼 그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집단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함으로써, 패전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반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독일은 여러 방면에서 공식적인 반성의 재스처를 취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특수한 길’을 내세워 나치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거나,¹¹⁾ 또는 사회불만세력을 흡수한 네오나치 등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등, 자신들의 과거를 덮으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덕분에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념과 기념물, 기념공간에 대한 논의와 표현은 그 이중적 관점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고차원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만큼 풍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88년 제작된 솔 르위트(Sol LeWitte, 1928-2007)의 <Black Form Dedicated to the Missing Jews>(도 1)는 독일의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념물이었다. 이 기념물은 바로크 양식의 고전적인 건물 앞 잔디 위에 검은 천으로 두른 상자를 놓아둔 단순한 작품이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와 낭만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바로크 양식의 건물은 국가의 장엄함과 귀족의 위엄, 과학과 이성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를 통해 독일의 영광스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한 때 자신들이 그들 스스로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치의 제3제국에 대한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 르위트는 바로 그 앞에 유대인학

11) 테들레프 포이케르트, 김학이 역, 『나치 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006, pp.11~13.

살을 상징하는 검은 관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독일의 역사적 책임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즉 홀로코스트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재현함으로써, 과거의 만행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 관계가 역전되어 과거의 일에 대한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현재, 즉 피해자가 승리한 현실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 기념물을 직접 보거나 이를 사진 등으로 접했던 관람객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그 자신들이 당시의 가해자로서 현재 그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자신들의 땅에서도 반성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길 요구받았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적인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이를 거북하게 여겨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은 나치와 현재의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했다. 결국 이 기념물은 고전을 헤쳐나갔다는 명목에 여성의료 88년 해체되었다가 9개월 만에 장소를 옮겨 재 설치되었다.¹²⁾

존슨 게르츠(Jochen Gerz, 1940-)와 에스더 게르츠(Esther Shalev-Gerz) 부부의 <Monument against Fascism>(도 2)은 86년 작품으로 시간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주목한 기념물이다. 기념물은 사각형의 알루미늄 기둥으로 길거리의 한편에 설치됨으로써 누구나 가까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행자는 이를 둘러보며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기둥에 적거나 다른 관람객이 이미 적어놓은 메모를 감상하면서 홀로코스트의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¹³⁾ 즉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기둥을 중심으로 관람객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기념물은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작품 자체가 서서히 가라앉게 장치됨으로써 기념의 행위가 가지는 시간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알루미늄 기둥은 단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에 적힌 수많은 관람객들의 생각도 함께 가지고 가라앉는다. 때문에 사람의 키보다 높은 이 기둥은 점점 가라앉으면서 기둥의 모든 공간에 많은 관람객들의 다양한 생각을 새기게 된다. 이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이 끊



도 2 게르츠 부부, <파시즘에 대항하는 기념물>, 1986, 독일 하버

12) Young, *The Texture of Memory*, pp.17~20.

13) Ibid., pp.28~37.



도 3. 한스 하케, <판단의 기준>(파괴된 직후), 1988, 오스트리아 그라츠



도 4. 호이헤셀, <반전된 형태>, 1984, 독일 카슬

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기념물은 그 꼭대기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가라앉도록 설계되었기에 기둥이 적힌 낙서는 땅 속에서 영구히 보존된다. 물론 이 기둥이 서 있던 공간은 이 기둥이 서 있었다는 기억만을 남긴 채 텅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재의 공간, 즉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공간에서 관람객은 이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이 부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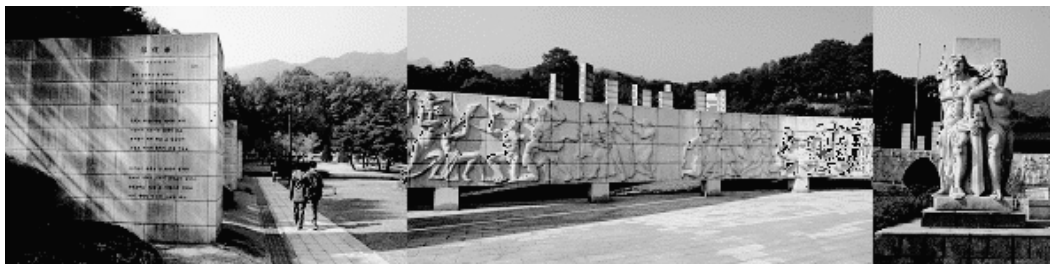
게르츠 부부의 작품은 기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파괴하고 있다. 기념물은 보통 기억을 위해 또는 무엇인가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지만이 작품은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즉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에 대한 기억, 사라진 작품에 대한 아련함을 만든다. 작품은 사라짐을 통해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작품이 있던 공간은, 작품의 부재를 통해 기념물과 기념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시간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반기념물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반기념물은 그 기능이 승리의 기념보다는 반성의 촉구에 있다. 즉 감추고 싶은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기에 반성을 요구받는 측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반기념물은 자신이 전달하는 개념적인 충격을 중화시키기 위해 중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 현재의 승리자와 패배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형식을 찾는 것이다.

만약 그 한계를 저울질 하지 못하면 앞의 솔 르위르의 기념물이 한 때 철거되거나, 나치의 기념물을 그대로 재현한 한스 하케(Hans Haacke, 1936-)의 <Point of reference>(도 3)가 화염병으로 직접 공격당하여 불타던 경우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¹⁴⁾

호스트 호이헤셀(Horst Hoheisel, 1944-)의 <Negative-Form>(도 4)은 중의적 표현으로서 양편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기념물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분수를 재현하여 땅에 거꾸로 박은 형태인데, 모티브가 된 분수는 1908년 지그문트 아크로드(Sigmund Aschrott, 1855-1909)라는 유대인이 카슬시에 기부한 것으로, 카슬시가 나치에 장악된 직후 파괴되었다가 전후 60년대에 다시 복원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 당국의 방치와 네오나치의

14) Ibid., pp.97~104.



도 5. 국립 4.19민주묘지 내 조형물, 서울

테러로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자, 카슬시는 이를 새로운 기념물로 대치할 것을 결정했다. 제작해야 될 기념물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호이헤셀은 이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몇 주 동안 전시한 후, 이를 거꾸로 얹어서 지하에 묻었다. 그리고는 분수의 바닥에 홈과 수채 구멍을 만들어 여기에 모아진 물이 지하로 흐르게 하였다. 분수는 지하로 흐르며 망자의 세계에서 다시 그들을 위한 분수대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¹⁵⁾ 보행자는 그 위를 걸으며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거나, 또는 이를 망각한 채 그 위를 짓밟고 지나다니면서 현재의 상황을 온 몸으로 고발하게 된다.

그러나 반기념물을 거부하는 편에서도, 이 기념물이 거꾸로 세워져 지하에 묻혔다는 점에서, 또한 그 위를 자신들이 밟고 지나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 할 수 있었을 것이다.¹⁶⁾ 반기념물은 독일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 물질적 부재의 형태를 통해, 해석의 다양함과 기억의 영원함을 추구하며 현재와 마주하고 있다.

2. 국내 공공기념공간의 사례와 제안

국내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규모의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러나 독일과 비교할 때, 강도에 있어서는 약할지라도 기념의 대상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의 복잡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념공간은 아직도 기념대상의 미화에만 집중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

15) Ibid., pp.43~48.

16) Ibid., pp.104~112.



도 6. 5·18기념문화관 내 조형물, 광주

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기념공간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4·19국립묘지’ (도 5)와 ‘5·18기념문화관’ (도 6) 그리고 ‘독립기념관’ (도 7)에 대해 분석하여 앞의 사례에 비추어 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4·19국립묘지’의 경우, 해방이후 전국규모로 일어난 최초의 국민항쟁이었던 4·19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성금과 국비보조로 1963년 4·19묘지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4·19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묘역의 전체 공간구성은 추모, 참배 및 행사를 위한 공간과 교육 및 전시공간 그리고 주차·휴게·관리등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관람객이 스스로 기념대상을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은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진입로 앞에 세워진 ‘민주의 뿌리’ 기념탑은 화강암으로 된 9개의 기둥과 그 중앙에 놓여진 청동의 자유투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묘역의 다른 기념물들과 마찬가지로 화강암과 청동을 주로 사용하는 제3공화국의 전형적인 기념물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높이 치솟은 화강암의 육중함과 힘, 청동재질의 강인함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당시 정부의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이 기념물들 앞에서 숭고함에 압도되어야 하고, 선열의 정신을 숭배하는 객체로서, 이 풍경의 배경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5·18기념문화관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서 계획된 집단살해라는 점에서 홀로코스트와 가장 유사한 사건이었던 5·18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 정부의 원조로 조성되었다. 기념문화관은 전시와 컨벤션, 사무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동광장 상층부 중앙의 인물입상이나 지하광장 중심의 청동모자상, 벽면의 부조, 희생자 명패 등의 기념물 등은 구상(具象)적 묘사로 채워져 있다.



도 7. 독립기념관 전경 및 조형물, 천안

기념물들은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 즉 항쟁하는 시민이나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침으로써, 관람객이 스스로 5.18을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아 버리고 있다. 기념문화관 측은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당시의 쿠데타 세력에 대한 증오와 희생자들의 숭고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습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마치 묘석처럼 열 지어서있는 광장의 스테인리스 열주도 추상표현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해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에 있어 이미 가해자 정부와 피해자 광주를 규정한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그 폭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7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천안시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특히 국립4.19민주묘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대로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형태로 구성된 건물들의 배치, 그리고 대로 끝 중앙에 위치한 한옥 형상의 ‘겨레의 집’은 엄숙함과 장중함을 느끼게 만드는 장치로서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그 위용에 압도당하게 만든다. 즉 기념관은 자연의 방만하고 세밀한 질서와는 다르게 인공물의 기하학적 질서를 그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인간, 더 나아가 이를 기획한 기념주체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시민은 그 이질감 속에서 느껴지는 규모의 거대함과 계획성에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민족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시민은 이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형상’ 혹은 ‘기도하는 양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겨레의 탑’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하는 기념물로서 그 대칭적 비례의 계획성과 거대함으로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

고 있다. 또한 전·후면의 무궁화와 태극문양, 내부의 청룡·백호·주작·현무의 사신도 모자이크, 바닥의 한반도 모양의 도, 황동주물로 만든 24괘 등은 한민족의 이미지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민족의 이미지를 몇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열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한민족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민족의 정신이나 한국적인 ‘미(美)’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이나 문양을 사용한다고 해서 표현될 수 없다. 당시 건축가와 조각가 디자이너들이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던 정부정책에 따라 무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¹⁷⁾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기념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경험의 강요 그리고 교육은 오히려 과거와 현재, 현재의 다양한 환경과 집단 간에 맺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억압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

이들 공공기념공간의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전략은 전시구조만 살펴봐도 쉽게 드러난다. 즉 가해자의 억압에 맞선 피해자의 시련과 승리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기념주체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하는데 치우쳐져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¹⁸⁾

일례로 ‘5·18기념문화관’의 경우,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만행과 이에 대한 항쟁을 기념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 기념문화관의 이념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훈육하려는 방식은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진압부대원들의 경우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시민에 대한 진압명령은 내면적 갈등을 불러왔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죄의식에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념주체가 이야기하는 시민도 광주전체를 대표하기 보다는 계층별로 각기 참여의 정도를 달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또 다른 관점과 해석이 요구된다. 근대화에 의한 인간소외는 사회와 개인의 경계에서 많은 갈등상황과 역할전도를 가져온다. 흑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전시과정에는 오직 당시 가해자였던 쿠데타 세력의 비인간성과 악랄함, 피해자였던 광주 시민의 용기와 희생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흑백논리의 극명함을 통해 현

17)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pp.186~190.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전당/기념시설사례(http://www.kdemocracy.or.kr/Korminju/Korminju2_Example/korminju2_Korea.asp?gVal1=2&gVal2=3)

실의 모순과 이중성을 가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기념공간들의 일방적인 소통구조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만이 아니라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가칭 ‘한국민주주의전당’ 처럼 앞으로 만들어질 공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쉽 없이 나아가는 꿈을 실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상되고 있는데,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델과 대안을 창출·지원하며, 민주세력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시킬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념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⁹⁾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기념관(민주화운동기념역사관), 문화의 전당(국제민주센터), 교육의 장(민주주의교육센터), 지원활동의 센터(연구소와 사료관)의 복합체로서 기존의 기념관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적인 기념시설과는 달리 과거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체험,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상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체험활동, 국제교류와 지원 활동을 이루어지는 복합 센터의 성격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칭 한국민주주의전당에 대한 분석은 선부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구성에 있어 전당과 관람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전당의 미래에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는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기획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게 만든다. 물론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과 공간을 요구한다.

공공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되며, 공공기념공간은 그 구조 속에서 기념의 의미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장소이다. 이는 기념의 의미를 어느 한편의 관점에서 형성하여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념공간과 관련된 모두의 관계 속에서 기념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전당/한국민주주의전당
(http://www.kdemocracy.or.kr/Korminju/Korminju2_Korminju/korminju2_Korminju.asp?gVal1=2&gVal2=0)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진정으로 공공기념공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IV. 결론

공공기념공간은 공공인터페이스의 한 형태로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그 바탕에 두지만, 기념이라는 특정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 디자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공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견 다양성과 일방성의 대립, 즉 공공기념공간의 목적과 공공공간이 지닌 인터페이스적인 특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념대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특정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이 일방적으로 주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독일 ‘반기념물’의 경우에서 살필 수 있듯이 공공기념공간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라는 문제, 즉 기념이라는 행위를 둘러싼 기념위원회와 디자이너 시민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직할 것인가라는 상호커뮤니케이션구조의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공공기념공간은 기념대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뿐 아니라 다시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단지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그 보여줌의 주체인 기념위원회의 해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공공기념공간을 경험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소통이자, 기념위원회와 디자이너, 기념공간과 시민의 소통이기도 하다.

물론 기념을 기획하는 주체의 기념대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거부하거나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해석과 이해는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공동체 전체의 해석과 이해가 아닌 일부집단의 단편적인 해석과 이해에 불과하다. 공공기념공간은 이를 공동체 전체에 강요하기보다 공공공간의 인터페이스적 특성, 즉 상호커뮤니케이션구조 자체를 인식하고 그 구조 속으로 다양한 해석과 이해가 직접 개입하고 니케이션구조 도록 자신의 공간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공공간을 경직시키고 그 커뮤니케이션구조를 파괴하기 보다는, 소통과 협

의가 존중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념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기념공간은 아직도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인터페이스의 의미와 구조를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의 공공기념공간도 보다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09. 9.20/심사완료일: 2009. 10.27/게제확정일: 2009.11.29

주제어(Keywords)

공공기념공간(public-monument-space), 반기념물(counter-monument), 인터페이스(interface), 커뮤니케이션구조(communication structure), 창의성(creativity)

참고문헌

- 기 본지폐. 박혜천 역, 『인터페이스』, 시공사, 2003.
- 김영찬, 『디자이너, 디자인에 탄지를 걸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
- _____, 「공공인터페이스에서 간판의 커뮤니케이션구조와 미적감성의 기능연구」, 한국미술이론학회총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 _____, 「공공공간의 유비쿼터스화에 적합한 공공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념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Vol. 22,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9.
- 김영찬·최치권,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웹 커뮤니티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제안」, 『한국디자인지식 포럼』, Vol. 02,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06.
-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 데들레프 포이케르트, 김학이 역, 『나치 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006.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자크 데리다, 김보현 편역, 『해체』, 문예출판사, 1996.
-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5.
- 크리스티안 노버그 슐츠, 민경호 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 민주주의운동기념사업회(www.kdemocracy.or.kr)
- Nietzsche, Friedrich. Adrian Collins. *The Use and Abuse of History*. New York: Cosimo Classics, 1985.
- Young, James E.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Abstract

A Proposal of Complex Communication Structure on Public Memorial Space by Study of Interface System

Lee, Seung-Hwan(Dong Yang University, Professor)
Kim, Young-Chan(HanYang University, Lecturer)

Space is a phenomenon which is formed in the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human beings and public space is built by a complex phenomenon of space. Each and every individual is connected to an environment and these individuals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A public commemorative space means souvenir and memorial which is designed for special purpose of remembrance of a specific area.

One of the purposes of public commemorative space is memorial and that is the reason of doing public relation and educating citizens over the transom. However, the meaning and value of commemorative subject cannot be delivered or stuffed one-sidedly. The target who receives messages from public commemorative space has reinterpreted the messages of his own with his personal experience, knowledge and sensitivity. It results in an unexpected phenomenon of public commemorative space. Therefore, public commemorative space should be considered in a mutual communication structure rather than a purpose of memorial itself.

Korean public commemorative space is focused on public relation and education for memorial. In other words, Korean public commemorative space is neglected its important possibility of the productive chapter of mutual communication. The mutual communication structure of public commemorative space which is based on variety and haecceity is ripped up by the message over the transom. It destroys the self-control and creativity of public commemorative space, and derives a negative result. By studying the function and meaning of public commemorative space, we should make the best use of it.